

비전 성남

Vision Seongnam

6

2012년 5월 25일
통권 제203호



스마트폰으로 비전성남 보기

- 아이폰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어에서 '비전성남' 검색 후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성남시정 보기

- 성남시 모바일 홈페이지
<http://m.seongnam.go.kr>
- 스마트폰에서 '성남시청' 앱 다운 받기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공보관

주 소 우)462-7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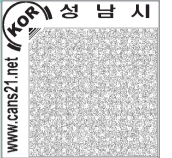
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

- ▶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은 월1회(25일경) 발행됩니다.
무료구독신청 031-729-2075~6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수진2동 삼부아파트
지역난방이 공급돼 편리하고 저렴하게 난방을 이용하고 있다

성남 수정 · 중원에 '지역난방' 공급

시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확대 보급 위한 협약 체결

성남시 분당 · 판교 등 신도시 지역에 주로 공급되던 지역난방이 본시까지 수정 · 중원지역 재개발, 재건축구역에도 공급될 전망이다.

성남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는 5월 9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난방공급 사각지대인 본시까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게 돼 더욱더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분당 · 판교 등 신도시 지역에 주로 공급되던 지역난방을 수정 · 중원 도시정비구역에 들어설 아파트(6만2,860세대)와 기존 아파트(2만3,621세대) 등 약 8만6,781세대에도 공급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1면에서 계속

이르면 2015년부터 8만6,781세대 공급 재건축사업 호재, 본시까지 현안사업 해결 등 큰 성과



이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0~11월 신규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지 않고도 분당열병합발전소(분당동)와 판교열병합발전소(백현동)의 잉여열을 활용해 수정·중원지역에 지역난방을 도입하는 방안 등 사업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친 뒤,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르면 2015년경 본격적인 난방열을 공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소외계층 지원, 문화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성남시, 주민부담 최소화하고 주민의견 최대 반영키로

성남시는 지역난방 확대 보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 시 인·허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시는 본시가지에 지역난방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9월 공무원으로 수정·중원지역 '지역난방 도입 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12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지역난방 도입 자문단'을 구성,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 MOU 체결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3월 공사 사업본부장과의 면담, 4월 성장동력처장 면담 등을 거쳐 5월 이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시는 현재 지역난방 도입에 따른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와 협의 중이며, 앞으로

지역난방 효과는 개별난방(도시가스)에 비해 20% 정도 요금이 저렴하고, 세대별 보일러가 없어 교체·수선비 등이 절감되고, 보일러 관련 사고도 없어 안전하다.



지역난방 도입 자문단 회의와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가져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구도심 지역발전 탄력...

안전성·저렴한 요금 등 삶의 질 향상

성남시는 기회가 균등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온 결과, 본시까지 주민 숙원사업인 지역난방공급 해결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경기 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본시까지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집값 상승 등 본시가지 지역발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분당·판교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혜택을 받지 못한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그동안 분당·판교 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급되기 시작한 지역 난방열이 같은 시 관할임에도 본시가지에 공급이 안 돼 지역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

이 밖에도 본시가지 주민들은 저렴한 난방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난방'은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및 CO₂ 저감효과로 인해 녹색성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 대기환경 개선, 분산형 전원역할,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에 따른 석유의 의존도 감소 등 여러 효과가 있다.

녹색성장과 지역난방T/F팀 031-729-3296

주민 미니 인터뷰



심희주 기자 heejoo719@daum.net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난방이 있어 분당 친구 아파트에 가면 참 부럽고 한편으로는 속상했는데, 수정구에서도 머지않아 지역난방을 사용할 수 있다니 좋습니다. 집값도 오르지 않을까요? 성남시, 그리고 수정구에 사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석갑(43·남) | 수정구 태평3동

“지역난방이 들어오니 너무나 반가워요. 아무래도 주부이다 보니 그동안 도시가스를 사용하느라 난방비가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난방비가 절감될 것 같하니 딱 주머니를 찬 것 같이 기뻐요. 또 보일러가 없어 안전하니까 기대가 돼요.”

박문숙(58·여) | 중원구 상대원2동

“얼마 뒤면 아들이 결혼해 살림을 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들 내외가 본시가지가 불편하다고 분당으로 가려고 해요. 지역난방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곳도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꼭 얘기해 주려고요.”

이미숙(60·여) | 중원구 하대원동

성남시, 5천억 규모 터키개발 사업 참여 추진

터키 가지안텝 시와 우호협약 체결 태양열 발전 시스템 건설, 가지레일 건설 프로젝트 협력키로

성남시와 터키 가지안텝 시가 현지에서 추진하는 총 5천억 규모의 사업을 협력 추진한다.

성남시는 터키 가지안텝 시와 4월 27일 우호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지 100메가와트급 태양열 발전시스템 건설 사업과, 터키 가지안텝 시와 중동 시리아를 연결하는 철도인 가지레일 22km 건설 프로젝트 사업을 협력해서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터키 가지안텝 시에서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IT분야 등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우수한 첨단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성남시 소재 기업체들의 동반 참여를 요청해 오며 따라 성남시장이 직접 터키를 방문해 성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 소재 기업이 터키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럽과 중동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터키 시장 진출

가지안텝 시는 터키 내 경제규모 5위, 인구 156만의 광역도시로서 유럽과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강점을 지닌



성남시 관계자들이 가지안텝 시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현지 기업인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

동남부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터키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핵심도시다.

지난 3월 한국-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가시명된 데 이어, 올해 말 국회비준을 통해 한국-터키 FTA가 공식 발효되면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이에 앞서 가지안텝 시와의 우호협약 체결을 통해 성남시 소재 기업

이 터키 내수시장을 선점,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가지안텝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가지안텝 시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 시스템, 보안장비 분야의 성남시 소재 기업인들과 동행, 가지안텝 시 기업인들을 만나 사업 관련 미팅도 가졌다. 그 중 폐기물처리 관련 기업은 현지

바이어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계약을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산업경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자리도 마련했다.

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확대 기대

성남시와 터키 가지안텝 시의 '우호도시협약'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체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 협력을 망라하고 있어, 앞으로 양시 간 다양한 교류협력이 기대된다.

성남시장은 "터키 가지안텝 시는 매우 역동적이고 열려 있는, 발전잠재력이 뛰어난 도시로, 우리처럼 전통시장이 잘 발달된 것 같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남시와 가지안텝 시 간에 그리고 성남시민과 가지안텝 시민 간에 교류와 협력이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을 마친 성남시장은 '터키 한국군 참전 용사회'를 방문, 한국전에 참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고귀한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히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031-729-2641

행정 혁신

시민행복 체감지수 높인다

일·기능 중심 효율적 조직... 청렴·봉사·일하는 공직문화로

성남시는 5월 2일자로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4월 일과 기능, 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에 이은 조치로 민선5기 하반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성남시의 진용을 갖췄다.

이번 인사로 4급 서기관 3명, 5급 사무관 11명,

6급 41명을 비롯해 전 직급을 대상으로 승진과 전보 등 총 607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특히 내부조직의 화합을 위해 승진인사의 경우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본청의 격무부서 12개 팀장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시정

에 적극적인 인재를 선발 배치해 업무성과에 따라 다음에 승진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또한 6급 승진자 25명을 구청에 배치,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구청의 7급 이하 신진 우수인력을 본청에 배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성남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5급과 6급 승진임용 배수 내 공무원에 대한 공직내부의 의견수렴을 위해 동일직급 대표자를 선정, 직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육아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재적

소에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부통신망을 통해 '희망부서'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급과 6급 승진 임용후보자 126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식의 검증절차인 소양평가를 실시, 시정운영에 대한 공직마인드를 평가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봉사정신과 열정, 청렴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예정이다.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729-2291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긴급하게 아이 맡겨야 할 분 “걱정 마세요” ‘아이사랑 공공 베이비시터’ 파견... 중원 4곳 시범

성남시는 5월 7일~12월 31일 ‘아이사랑 공공 베이비시터 사업’을 진행한다.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베이비시터를 파견해 무료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중원 지역을 시범 구역으로 정해 중원구 지역에 소재한 하대원어린이집, 금광2동제2어린이집, 은행어린이집, 다솜어린이집 등 4개 국공립어린이집에 공공 베이비시터를 각각 1명씩 배치하고 담당 지역을 정해 서비스를 전담토록 했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중원구 거주 가정은 일시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정 어린이집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공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2회차 신청부터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공공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연 10회까지 이용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부모,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은 우선 서비스 대상이다.

김제균 시 보육정책팀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현실성 있는 양육 지원 서비스를 하려고 이번 시책 사업을 기획했다”면서 “자녀 때문에 긴급한 일을 보지 못해 안절부절 하던 부모들의 걱정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공공 베이비시터 사업 외에도 시청사 1곳

에만 설치 운영하던 ‘아이사랑 놀이터’를 수정구 단대동, 분당구 판교동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했다. 6월에는 성남시청사에 1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다문화 가정에는 보육정보센터, 다문화지원센터가 연계해 어린이집 아동의 가정 통신문 번역을 지원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언어치료사는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장애아에게 언어 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과 보육정책팀 031-729-2932

■ 관할지역 및 지정어린이집 현황

구 분	관할지역 · 전화번호
하대원어린이집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031-721-6550
금광2동제2어린이집	중동, 금광 1·2동 031-733-7989
은행어린이집	은행 1·2동, 양지동 031-731-4190
다솜어린이집	상대원 1·2·3동 031-732-6235



■ 성남시 육아지원 영유아활동 프로그램2 ‘조물조물 흠놀이’

영유아의 오감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근육 발달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자연친화적 영유아활동 프로그램이다.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을 느껴 보자.

구 분	기간(3개월 총 12회)	시간(30분 수업)	접수기간
시청 아이사랑놀이터	6월 12일~8월 28일(예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5월 29~31일
분당 아이사랑놀이터	7월 3일~9월 18일(예정)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12시	6월 20~22일
수정 아이사랑놀이터	7월 4일~9월 26일(예정)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6월 20~22일
대 상	시 거주 24~36개월 영유아와 부모 (시청아이사랑놀이터, 수정아이사랑놀이터, 분당아이사랑놀이터 각 센터별 12가정)		
주 제	조성안 도예가(아동 점토미술 강사)		

성남시보육정보센터 031-721-1640 www.sneducare.or.kr

이달의 행사 | 호국보훈의 달

순국선열 추모... 현충일 추념 행사 등 열어

성남시는 오는 6월 6일 현충일을 전후해 범시민적 호국·보훈의달 행사를 전개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전후 세대들에게 보훈의 참뜻을 인식시키기 위해 6월 6일(수) 오전 9시 55분~11시 30분 태평4동 현충탑 경내에서 보훈단체장 등 관계자와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 행사를 갖는다.

현충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충탑과 야탑역 광장에서 순국선열에게 꽃 한 송이 바치는 시민헌화운동도 진행된다. 가정에서는 오

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 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 너비만큼 내려서, 집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공동주택은 앞 베란다) 왼쪽에 게양한다.

초·중·고등학생 현충탑 참배(6.7~8)와 호국·보훈 사진전시회(6.6~8 야탑역광장, 현충탑, 남한산성유원지)도 마련,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훈가족을 위한 러브콘서트’가 6월 14일(목)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성남시립국악단의 공연으로 선보인다.

■ 제57회 현충일 범시민 헌화운동에 참여해요 ■

• 일시 : 2012. 6. 6(수) 10:00~17:00

• 장소 : 수정구·중원구 : 현충탑(6.6 ~ 6.8 3일간) / 분당구 : 야탑역 광장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팀 031-729-2824

[성남시가 취업의 꿈을 지원합니다]

7월 1일 비정규직 근로자 143명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 처우 대폭 개선... 나머지 상시업무 근로자도 정규직 추진

성남시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 1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57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43명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해 오는 7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전환대상은 시 본청 근무 사무보조·상담업무 근로자 10명, 보건소 근로자 57명, 도서관 등 사업소 근로자 68명, 동 작은도서관·주민센터 운영 근로자 8명 등 총 143명이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비롯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정규직 전환계획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준수하는 한편, 내년까지 근로자의 55%인 19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

써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처우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이들 연봉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기본급에 급속가산급,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가 추가돼 기존 1,28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상승될 예정이다. 또 복지포인트 110만원, 연가보상금 등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 214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 근로자 52명은 내년도 직무분석과 직무수행 능력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기본급이 3.5% 인상, 6개월 이상 근무자는 명절휴가비 10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으로 각각 두 배로 올려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중원구보건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3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와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정적·지속적 일자리 창출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 031-729-2243



사회적기업 아이디어에 2억5천만원 지원

성남시가 강력히 추진하는 특별 일자리시책 사업, 전국 최초 성남시민기업 육성이 또 다른 전기를 맞고 있다.

성남시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진행한 성남시민기업 창업경진대회의 마무리자리로 4월 25일 성남시민기업 인큐베이팅 창업팀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최종 선발된 5개 팀이 5개월 동안 대회 주관단체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창업보육센터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한 창업내용을 발표했다.

효순효식팀은 노인활동과 돌봄서비스 사업인 '어르신 돌봄'을, 에텐팀은 장례행사지원 사업 '착한 상조'를, 자연에너지팀은 태양열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는 '환경보호'를, 문화로썬팀은 문화예술 교육사업인 '문화개혁'을, 성남누리팀은 대안화폐로서의 '지역화폐'를 각각 발표했다.

시는 이들 5개 사회적기업 사업 아이디어에 모두 2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선발팀을 사회적

기업 창업보육센터(수진동 벤처빌딩)에 입주시켜 인큐베이팅 지원 등 시민기업의 조기 정착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지난 5월 14일에는 시청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안 경제 성공모델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정책 연계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에는 현재 24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55개 기업에 1,100명 고용을 목표로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031-729-3662**

취업! 도와드려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직원 모집

- 모집인원 : 요양보호사 00명
- 자격기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입사지원서, 주민등록등본),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당사 소정 양식) www.scsch.or.kr/ 홍보센터/ 자료실 참조
- 접수기간 : 5월 8일(화)부터 총원시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sooan88@scsch.or.kr)

성남시노인보건센터

031-739-3002, 031-739-3000

성남시보육정보센터 가정보육교사 모집

- 자격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2년 이상 실무 경력이나 출산 양육 경험자
- 업무 : 만 24개월 미만 영아의 가정에 방문해 1:1 보육(가사업무 제외)
- 지원 : 교사 활동지원비 지급, 상해 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 신청 : 홈페이지 www.sneducare.or.kr 성남시보육정보센터 031-721-1640(내선 7번)

성남시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모집

- 업무 : 대체교사 기간 중 주 5일 어린이집 근무
 - 대우 : 4대보험 가입, 보육 경력 인정
 - 인원 : 성남시 3명, 하남시 2명 총 5명
- 성남시보육정보센터 031-721-1640(내선 6번)

산재근로자 취업 상담

불의의 재해를 입은 산재 근로자들에게 고용시장 진입을 위한 취업지도 및 취업 정보를 제공, 새로운 일터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민간고용 서비스업에서 오래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직업전문학교 등 3개 기관과 MOU 체결, 두리인력 파출부 본사, 지사 5개소, 가맹점 27개소 간 구인처 발굴 정보 상호 공유를 통해 파출부(서빙·주방·가정도우미·입주청소), 건설인력(잡부·기공), 철거전문, 경비, 미화, 운전기사, 배달 등의 취업을 도와준다.

일당 당일지급, 월급제, 일당제, 시간제 등 건설·파출부 인력을 대모집하고 있으니 주민등록증과 이력서(사진부착)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두리인력파출, (주)두리잡 031-741-0009

스마트폰에서 아르바이트 찾기



G알바

경기도가 자치단체 최초로 아르바이트정보 앱을 개발했다. 개인과 업체가 원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정보를 손쉽게 올리고, 조건에 맞춰 취업지원과 면접제안도 가능한 똑똑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폰의 구글플레이어와 앱스토어에서 'G알바' 또는 '지알바'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다. 경기일자리센터 031-8008-8661~3





행복으로 가는 또 다른 길...

함께해요, 재능 나눔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인 재능나눔이 기부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일시적 기부보다는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참여형 기부 문화 확산을 추진하며 다양한 재능을 기부 받고 또 나누고 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없다고요? 지금 성남시에서 어떤 재능이 나눠지는지 알아볼까요?

- 다·해드림 하우스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이사, 청소, 도배, 소독 등을 도와요.
- 장애인 보장구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수리해 주지요.
-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종이공예 강의, 미용봉사를 해요.
- 그린리더(청소년) 동아리 모집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기후코디네이터가 기후변화교육을 하고요.
- 성남시 안경사회의 재능기부로 월1회 사랑의 안경나눔 사업을 해요.
-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재능기부로 주3회 성인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 성남시 의사, 약사, 치과 의사들이 외국인 무료진료와 치과진료도 해요.
- 장애인 발마사지 교실도 운영하고 있지요.
- 음악, 웃음, 미술 치료사가 재능을 나누고요.
- 합창단과 밴드부도 운영되고 있어요.
- 학습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 공동주택관리 봉사에도 참여해요.



이 밖에도 많은 개인과 단체, 기업이 재능을 나누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에는 '성남 세무사회 사회적기업 재능 나눔 협약'을 맺었다. 성남시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9곳), 예비사회적기업(15곳), 시민기업(17곳) 등 41개 사회적기업이 세무·회계 지원이 필요할 때 각 세무사 회원을 연계한다.

앞으로 성남시는 재능나눔 전담팀을 구성해 문화예술, 교육, 사회복지, 체육·기능·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능나눔을 지원해 나가려고 한다.

계획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대상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하려고 해요.
- 토요일업일 등교 학생을 위한 교육 재능 나눔을 계획했어요.
-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해요.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 올 4월 29일 창립된 '성남이로운재단'은 순수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재단으로서 기부와 나눔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단체다. 아동과 청소년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풀뿌리 공익활동 지원, 법률 및 세무 회계 자문, 개인과 기업의 기부관련 컨설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이로운재단에 가입하려면 기부약정서에 서명하고 자신이 기부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면 된다(031-759-2004).

'돈이 좀 생기면, 시간이 좀 나면...' 마음만 먹지 말고 손을 좀 더 뻗고 발을 내딛어 보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재능이 있다면 독거노인 말벗이 되어 주고,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 다소비식품 안전 파수꾼이 되는 것도 좋겠다. 전문화된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도 서로가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시 최초 보조기구서비스센터 문 열어 장애인에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곽상구)은 4월 17일 성남시 최초 보조기구서비스센터를 개소했다.

센터 정창희 팀장은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에 관한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역에 보조기구 관련 전문기관이 없고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수리 지연,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 및 개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센터 개소의 취지를 밝혔다.

복지관은 2006년 보조기구 대여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으로 확대 실행, 이를 바탕으로 보조기구 사용 장애인의 욕구와 기관의 노하우를 결합해 이번에 전문 센터를 연 것이다.

보조기구는 개인의 신체적 상황이 나 장애 특성에 따라 달리 제작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센터에서는 서비스의 전문적·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 유형·특성에 따른 맞춤서비스와,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상담, 평가, 수리, 대여, 제작,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에게 적합하도록 보조기구를 개조해 주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를 전담해 주며 수리기간 동안 편의를 위해 보조기구를 대여해 준다. 간단한 수리의 경우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직접 수리하고, 관내에서 수리가 어려운 경우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수리지원을 받

는다.

또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등으로 이동 중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 등의 위급상황을 만났을 경우 긴급출동119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이 바로 찾아가 신속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언제든지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는 곽상구 관장은 "앞으로 센터가 효율적인 보조기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과 직업 등에 다양한 활력을 주고, 더불어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기구서비스센터는 재활공학사와 수리기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31-733-3322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칭찬해요!!

어린이날 맞아 (주)한국헤르만헤세 도서 전집 '기증'

최근 1년 동안 5차례 3만여 권 저소득층에게

(주)한국헤르만헤세(회장 박연환)가 어린이날을 맞아 한 세트당 60여 권씩 묶인 우수도서전집 275세트(1억6,500만 원 상당)를 5월 2일 성남시에 기탁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7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시장과 박연환 (주)한국헤르만헤세 회장, 수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100명의 아동들은 읽고 싶은 전집 종류를 직접 선택해 역사, 자연 관찰, 창작동화, 신화 등의 전집 1세트를 어린이날 선물로 받아 갔다.

관내 47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도 3~5세트씩 모두 175세트의 전집을 마을 곳곳 도서관으로 가져갔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주)한국헤르만헤세는 어린이 전집 전문 출판사다. 2005년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아동의 독서·학습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수많은 도서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이번 기증까지 모두 5차례 동안 2만9,662권의 도서(3억 500만원 상당)를 성남시에 기증했다.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 031-729-2842



지난 2005년부터 지역의 어린이도서 기증에 앞장서온 (주)한국헤르만헤세 직원들

함께해요!!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대학 2012년 명사초청 강연회

- 일 시 : 6월 5일, 6월 14일, 6월 19일 14:30~16:40(3회, 3강좌)
- 대 상 : 성남시민
- 강의분야 : 행복, 자녀교육, 자기계발
- 참여인원 : 강좌별 200명(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 입장)
- 강의일정

강사	 용 해 원 (시인)	 구 성 애 (푸른아우성 대표)	 김 미 경 (w.insights 대표)
일시	6월 5일(화) 14:30~16:40	6월 14일(목) 14:30~16:40	6월 19일(화) 14:30~16:40
장소	중원어린이도서관	중원구청 대회의실	중원청소년수련관
주제	행복한 부부의 삶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지침서	말 잘하는 집안이 흥한다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031-729-6040~2

클릭! 청소년수련관

수정청소년수련관 www.snyc.net

• 학교연계 특성화 수영 프로그램
4~11월 초등학교 대상으로 기초반과 중급반을 편성, 신청학교별로 평일 오전 10~12시 총6회 수영강습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수시로 방문, 팩스 접수하면 된다.

031-740-5243

• 역사문화탐방 3차 '임금님 납시오'
오는 6월 30일 오전 12시~오후 5시 남한산성 행궁에서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정조임금의 남한산성 행행을 중심으로 문무과 시험시행, 군사훈련 등의 직접 체험, 상황극과 역사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6월 9일(토)부터 선착순 본인 직접 접수한다.



031-740-5263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www.uth.or.kr

• 오색오감 바리스타 도전기 : 경기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7~19세 장애청소년이 바리스타 전문교육과 자격 취득과정, 카페 운영활동 등을 5~11월(월2회) 배운다.

031-781-6185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www.tenten21.or.kr

• 오토(五土)패밀리 목공예 DIY 및 가족 신문만들기 : 6월 30일(토) 오후 2~5시 청소년을 포함한 15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6월 5일(화)부터 방문 접수한다.

070-7496-2027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www.pgyouth.or.kr

• 나래누리 주말체험 : 6월 23일(토)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농촌체험 삶의 현장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6월 5일(화)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이메일(pgyouth@snyouth.kr)로 선착순 접수한다.

070-4012-6676



• 빼어로그 들려주는 네 번째 이야기 '그룹 진조클루' : 6월 15일(금) 오후 7시 공연장에서 국내외 비보이 관련 대회를 석권한 현재 세계 최고의 비보이 그룹 진

조클루가 무대를 선보인다. 당일 오후 6시 20분부터 좌석표를 배부하며 공연 20분전 선착순 입장한다.

• 해피투게더 토요일교실 : 청소년 포함 10가족이 6월 30일(토) 오후 2시 냅킨공예-시계만들기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2만원, 6월 16일(토)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한다.

070-4012-6652

• 청소년뮤지컬극단 'Dream Wings' : 취약계층 14~18세 청소년 대상으로 뮤지컬극단을 조직, 뮤지컬 관련 이론과 실기를 익히고 공연활동을 전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화 면담 후 접수하면 된다.

070-4012-6685

• 박물관은 살아있다 : 6월 3째주 프로그램으로 6월 16일(토) 강화역사박물관, 선원사지, 고려궁지를 견학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은 6월 4일(월)부터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2만원.

070-4012-6683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www.sn-atti7979.or.kr

• 대한민국 5대 국경일, 빛을 발휘하다
2012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5월 26일부터 11월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국경일과 주요 법정 기념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행사다.

6월 2일(토) 오후 2시 분당구청 앞 문화의거리에서 두 번째 장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연다. 국가기념일에 대한 설문조사, 퀴즈대회, 손도장으로 만드는 태극기, 페이스북 릴레이, 우리 손으로 삼행시 짓기 등이 준비된다.

070-7487-2803

청소년지원센터 www.sn1388.or.kr

• 토요일상담 : 2012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일학교의 일환으로 '나 바라보기' 심리검사,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마음튼튼' 상담백화점 등을 마련했다. 관내 만 9~24세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센터, 신청학교와 기관에서 진행한다. 전화나 이메일(sn1388@hanmail.net)로 개별·단체 신청 가능

상담지원팀 031-750-4693, 4692



■ 이곳은 판교 ■

판교생태학습원으로 마을 탐험 떠나요

최신 시설의 판교생태학습원이 5월 18일 분당구 삼평동 637번지에 문을 열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기한 이야기들로 꾸며진 학습관이 1층과 2층으로 구성돼 있고 관람에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에너지 절약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숲·습지 등의 생태계를 생생히 관찰하고 체험을 통해 환경 분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를 더했다.

우선 1층 영상실에서 환경지킴이 '아리솔'을 통해 생명의 숲을 지키는 가슴 찡한 이야기를 보고난 후 전시코디네이터 오영조(49) 씨의 해설이 있는 탐험을 떠나본다.

초록마을

나무 생태계, 들풀 생태계, 땅 생태계 등을 통해 식물이야기에서 씨앗 품은 희망이야기까지 숲과 나무들의 이야기가 있는 초록마을에서는 압화대 전시된 호제비꽃, 민들레, 장구채, 애기뽕풀 등 성남의 지형과 식물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40초간 상영되고, 숲속 극장이 3분 20초 상영된다.

파란마을

하늘, 물, 동물들의 이야기가 숨어있는 파란마을에서는 동·식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도장 찍기와 알 체험(알퐁기), 수생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동막천에서 탄천까지 상류와 중류의 물속과 물가 습지친구들을 소개한다.

하얀마을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구환경을 지켜야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담겨있는 곳이다. 동물들이 이야기하는 생태마을 공청회에도 참

여해보고, 직접 발언도 할 수 있다.

사람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멀티비전을 통해 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온실

가시나무, 병솔나무 등과 같은 난대식물과, 바오밥나무, 주병야자, 워싱턴야자 등과 같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아열대식물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곳이다.

상설전시장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세계 각국의 개구리 캐릭터를 전시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언제든지 체험이 가능한 전천후 판교생태학습원에서 환경으로 인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식물이 살아 숨쉬는 공간에서 환경지킴이가 되는 즐거운 체험을 해보자.

-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 월요일은 휴관, 인터넷 접수가능



판교생태학습원 031-8016-1192 www.pcedu.net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사랑의 씨앗 심는 '성남 따뜻한 세상 만들기' 러브하우스팀

매월 1~2회 토요일 청소·도배·이사 봉사

“부엌 쪽 도배지입니다.”, “자~ 빨리 움직입니다.”

도배지를 풀칠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로 좁은 골목 안이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하다. 휴일을 반납한 봉사자들이 자기 집을 수리하듯 모두들 열심이다.

'성남 따뜻한 세상 만들기'(회장 최성연) 러브하우스팀이 수정구 태평4동 이모(19·학생) 군의 집을 방문, 비가 샌 벽지와 오래된 장판을 교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봉사를 펼쳤다.

“집이 갑자기 환해져서 어색하지만 밝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공부가 더 잘될 것

같아요. 도배할 엄두도 못냈는데, 엄마의 바람이 이뤄져 참 감사해요.” 방송PD가 되고 싶은 이모 군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받은 것을 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장애아 목욕봉사를 같이 했다는 조엄지(34·여·팀장) 씨는 “작은 사랑을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 행복해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가 봐요. 결혼해서도 아이랑 같이 봉사하고 싶어요. 내 아이가 사랑냄새 나는 밝고 순수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으니까요”라고 한다.

어려운 천정 도배도 척척이다. 모서리 하나도 꼼꼼히 마무리하는 최평호(33·남·봉사자) 씨 모습은 마치 프로답다. “같은 마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 '성남따뜻한세상만들기' 11호 커플이 되고 싶어요. 지금처럼 함께 봉사 열심히 하고 해외구호활동도 같이하고 싶어요”라며 호탕하게 웃는다.

봉사를 시작한 지 5년 동안 거의 빠진 적이 없을 만큼 러브하우스 봉사를 사랑한다는 김유경(48·남) 팀



장. “자부심이 없으면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봉사를 못해요. 남을 위한 배려로 하는 봉사는 큰 봉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요. 표 나지 않게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더 많은 대상자를 찾아 나눔을 같이하고 싶지만 월 회비와 참가비로 운영하는 예산에 어려움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카페 '성남 따뜻한 세상 만들기(회장 최성연)'에 가입 활동하면 된다. 러브하우스팀은 매월 1~2회 토요일 청소, 도배, 이사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방문해 지원하고 있다.



'온새미 길' 걸으며 성남아트센터 즐기기



온새미 길은 아트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나 있던 길이다. '온새미'라는 순 우리말이 품은 '또개거나 가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의 가장자리에 성남아트센터가 보기 좋게 들어서 있다.

오페라하우스 앞 광장에서 음악분수와 다양한 꽃과 나무 사이로 어우러진 야외 조각 작품을 잠시 감상한 후 앙상블시어터로 향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온새미 길을 안내하는 화살표가 나타난다. 키 작은 들꽃에서부터 큰 키의 나무까지 빼곡하게 자리잡은, 넓고 잔잔한 길이 아트센터를 두르고 있다.

이번 호에는 성남아트센터를 한아름 품고 있는 '온새미 길' 과 시민이 더욱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아트센터의 모습을 소개한다.

곳곳에 설치된 음향기기에서는 길을 닦은 음악이 멈춤 없이 흘러나온다. 두 개의 장미터널을 지나서 걷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사색에 잠기게끔 이끌어 준다. 길에서 만난 강성순(43·야탑동) 씨는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길이라서 걷는 내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으며 큰 키의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향긋함을 흠길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것"과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절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 온새미 길의 자랑거리라고 말한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영장산 자락의 종지봉(1.40km)까지 약 40분 동안 온새미 길이 이어진다.

문화예술로 마음의 안식 얻어... 공연장과 전시장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 공연장, 각종 편의시설과 야외 광장, 음악분수 등 휴식공간을 갖춘 열린 복합문화공간, 성남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는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등 크게 3개의 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1,804석의 객석을 갖춘 오페라하우스는 대형 오페라는 물론 발레, 뮤지컬과 더불어 대형 공연까지 가능한 다목적 홀이다. 콘서트홀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감탄할 만큼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전문 클래식 공연장이며, 소극장인 앙상블시어터는 연극과 재즈는 물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이 가능한 무대다.

각 공연장마다 거의 매일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료 전시 수시로... 레스토랑·카페 등 편의시설도

오페라하우스 지하 1층의 미술관과 앙상블시어터 1층의 미술관, 큐브플라자 2층에 위치한 큐브미술관 등 3개의 미술관에서는 단지 보고 지나치는 일반적인 전시장 개념을 탈피해, 작품과 소통하고 관객들이 직접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미술관 본관과 별관에서는 무료 전시도 수시로 열리는 만큼, 성남아트센터로 찾는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과 친해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방문객들을 위해 이탈리아 레스토랑 '파세토'와 '마리에프' 등 식사 공간과 카페, 기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맛있는 파스타와 향긋한 커피로 입이 즐거웠다면, 큐브플라자 1층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도 빼놓지 말고 둘러보자.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니 나누는 기쁨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뜻 깊은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자칫 나른해질 수 있는 여름을 성남아트센터 주변에서 풍요롭게 즐겨 보자.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성남아트센터 6월 공연 맛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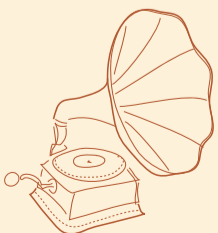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 일 시 : 6월 2일(토) 오후 5시
• 장 소 :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 내 용 : 로드리고 '아랑훼즈' 기타협주곡, 멘델스존 '이탈리아' 등
• 관람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성남아트센터 시민회관운영부 031-736-8305



**시리즈 연극 만원
<리턴 투 햄릿>**
• 일 시 : 6월 8~10일 금요일 오후 4시, 8시 / 토·일요일 오후 2시, 5시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관람료 : 전석 1만원
• 내 용 : 연극 '햄릿'의 마지막 공연을 앞둔 배우들의 이야기. 코미디극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성남문화재단 기획시리즈
<파크 콘서트>**
• 일 정 : 9월 1일까지 격주 토요일
마다 무료 진행
• 장 소 :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 6월 9일(토) 오후 7시 노트타악앙상블
• 6월 23일(토) 오후 7시 서울필하모닉 & 맑은소리 성악앙상블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안전한 도시 안심하고

범죄로부터 생활안전 지켜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CCTV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884곳에 총 1,416대의 CCTV를 설치해놓고 시청 8층 생활안전 CCTV 상황실에서 경찰관과 관제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해 각종 범죄나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최근까지 관내 경찰서와 연계해 139건의 각종 범죄예방을 지원했다. 오는 10월까지 총 9억2,600만원(국비 1억6,300만원 포함)을 투입,

다목적 CCTV 141대를 47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일반 주택가와 우범지역 32곳에 생활안전용으로, 관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15곳에 아동안전용으로 운영된다. 또한 신속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탐재 이동형 CCTV 3대를 구정에 추가로 보급해 운영한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아동·여성 등 범죄 약자와 관련, '원터치 SO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경찰서에서 미리 위치정보

동의서를 받아 휴대폰 단축번호 1번만 누르면 112신고센터에서 신청자의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신속히 출동시켜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조한다. 이 밖에 시민들도 어머니폴리스, 어머니자율방범대,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가정·성폭력상담소,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버 인형극단 운영 등 스스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중학생 흉흉한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의 근심 또한 커지고 있다. 가정에서 시민 모두가 인종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움말 :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없애요

성남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안전에 소홀해 일상생활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살핀다. 올 4월 가정용 소화기 보급에 이어, 5~7월 3개월간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불편 노약자, 중증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세대 등을 대상으로 노후 보일러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각 세대에 화재 발생 시 자동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사고를 예방한다.

점차 늘어나는 홀몸노인의 안전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 연말까지 9천만원을 투입, 365일 24시간 안전 확인과 구조구급이 가능한 '홀몸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300세대에 추가 구축, 모두 3,15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시 거주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에 화재 감지·가스 감지 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나 가스누출 시 관할 소방서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구조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또 활동량 감지센서를 통해 홀몸노인의 활동량 데이터 등을 확인해 이상 징후 발견 시 노인 돌보미

가 각 세대를 찾아가 안전상태를 살핀다. 지난 3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총 946건의 응급 구조, 3,505건의 안전 확인이 진행돼 홀몸노인의 생활 안전을 도왔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가로와 교차로 11곳에 교통약자 보호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 또한 보행자 안전시설 정비,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보행우선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122개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10곳을 정비하는 등 교통약자 통행권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Safety 성남

도시에서 생활해요



학생의 자살, 각종 재난사고 등
대리면서 학생이나 부모, 주변
다. 이에 성남시는 학교나 사
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

성남중앙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안윤자 기자 lee8509@hanmail.net



재난안전, 365일 24시간 대비해요

시는 관내 곳곳의 재난을 예방하
고, 여름 풍수해 등 기상특보에 따른
계절별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중
합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생활주변의 축대 옹벽, 교량, 건
축물 등 각종 시설물 중 재난징후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연중 신고를 받
아 처리해주며, 신촌동 상습침수지
역에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자연재난
위험 지역 안전관리도 실시한다.

생활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
해서는 구조와 응급처리 교육을 통한

응급처치 능력 제고, 중고등학생 대
상 가스안전 체험교실 등 가스안전관
리 강화, 건축공사장 순찰제 등 안심
일터 성남 만들기를 진행해 각종 위
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 폭력, 함께 예방해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지난 3~4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성남시
22개 초·중·고생 2,070명을 대상
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학교폭력이 심
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르면 피해경험은 22.7%, 가해
경험은 4.7%다.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학교 주
변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하는 의
도성을 가진 신체적, 정서적 가해행
동을 말한다. 고의적 괴롭힘이나 따
돌림, 금품갈취,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 신체적·집단적 폭행
등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개인
적으로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

성남교육지원청 정민숙 장학사
는 “학교폭력의 원인은 낮은 자존
감과 공격성, 학생의 인성 및 사회
성 함양 교육 미흡, 학교폭력 사안
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역할 부족,
학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 인터
넷·게임·영상 매체의 부정적 영

향력 증가 등”이라고 말했다. 학교
폭력 신고와 조사처리 과정의 문제,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의
한계, 학교폭력 유해환경 견제장치
미비 등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중앙경찰서 진정희(27) 순경은
“교육 때 보면 학교폭력을 장난치
럼 여기는 학생들이 있다. 최근 학
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폭력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졸업 후 5년
까지 기록보존하게 돼 있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며
“그런데도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가
법계만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성남시는 학교폭력근절 대응 방
침의 중요한 기저를 예방교육에 두
고 단위학교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서와 연
계한 스쿨폴리스의 범죄예방교실
과 폴리스아카데미 교실은 학생들
에게 인기가 있고 효과도 있다고
한다.

부모는 평소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태도와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피해학생은 부모와
담임선생님께 주저 말고 도움을 요
청하고,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학교 신고가 두렵
다면, 24시간 운영되는 학교폭력신
고센터 117로 연락하면 된다. 학생
고충 신고상담 전화는 1588-7179,
031-780-2597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경
찰청과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Wee센터)로 연계돼 결과는 학교
로 통보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이 성남시청
소년지원센터, Wee센터 등 각종
복지관과 치료기관, 보호기관 40여
곳에서 운영돼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전
반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성남시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의회 청사를 개방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의회 청사를 시민 여러분께 친숙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 개방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층 회의실 (24석, 둘러앉는 회의실 형태로 배치돼 있습니다)



- 1층 세미나실 (26석, 교실형태로 배치돼 있습니다)



- 1층 로비 (330㎡, 주로 전시 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방법 :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접속 → 참여마당 → 시설사용 신청 (실명인증 후 해당 날짜를 선택, 행사내용 등을 기재해 신청합니다)
- 방문해 신청하기
 - 방법 : 신청 전에 해당 날짜에 사용 가능한지 전화 확인 후 신청합니다. (전화 : 031-729-2524)

민의 대표 기관, 어떤 일 할까요?

성남시의회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안내

■ 모의의회 운영

- 운영기간 : 2012년 연중
- 참여대상 : 초등학교별 전교 어린이회장단(4학년 이상)
- 신청인원 : 매회 45명 이내(본회의장 의원석 : 44석)
-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문서(공문)로 신청
- 주요내용 : 홍보영상물 시청, 모의의회 운영 (안건상정, 찬반토론, 의결 등) 및 기념촬영

■ 의정참관단 운영

- 운영기간 : 2012년 연중(매 회기 본회의 시)
- 참여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
- 신청인원 : 매회 35명 이내(방청석 69석의 약 50%)
-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문서(공문)로 신청
- 주요내용 : 의회에서 하는 일 설명 및 본회의 방청, 기념촬영
- 운영시기 : 본회의 개회식, 폐회식(연간 약 11회, 회별 약 1시간)

■ 의회 견학

- 운영기간 : 2012년 연중
- 참여대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필요 시 어린이집 포함)
- 신청인원 : 매회 45명 이내
-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문서(공문)로 신청
- 주요내용 : 회의장 견학, 홍보영상물 시청, 의회의 역할 및 기능 등에 대한 설명
- 운영시기 : 수시(소요시간 : 약 30분), 다만 본회의 날은 제외 원칙



- ☞ 신청은 의회사무국 담당직원과 전화 통화(일정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팩스 : 031-757-8047, 주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사무국)
- ☞ 의회 일정 및 신청 가능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학교가 많을 경우 접수순에 의하되 의회 일정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배정합니다.
-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홍보팀(☎031-729-2541~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의회"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바르고 깨끗한 **청렴의회**
 사랑받고 믿음주는 **신뢰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화합의회**
 감동과 기쁨을 주는 **희망의회**
 끊임없이 변화하는 **창조의의회**



수정로 상권활성화 본격 가동

수정로 일대 30만5천㎡ 상업지역... 지역문화와 결합

성남시는 5월 14일 오후 2시 시청 6층 재단 사무국에서 '상권활성화재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성남시장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 1명, 타운매니저 6명 등 전문 인력으로 꾸려졌다. 오는 2016년까지 467억원(국도비 117억원 포함)을 투입해 수정로 일대 30만5천㎡ 규모의 상업지역을 지역문화와 결합된 상권으로 육성한다.



재단은 브랜드 개발, 상인대학 개설, 상품 및 점포 개발지원, 창작예술 및 주민참여시장 운영, 우수점포 발굴, 마케팅사업지원 등 각종 경영개선사업을 한다. 특히 '보급형·복지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 유치 성공으로 지원받은 별도의 국비 5억원으로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에 오는 12월까지 상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수정로 상업 지역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으로 만들어 구역 내 1,936개 점포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 재단 사무국이 'SNS'를 통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단골고객 관리나 각 점포별 QR 코드 쿠폰 발행, 할인·경품 정보도 실시간 제공해 지역 주민들이 'SNS'로 전통시장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재단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주민, 상인,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수시 운영하고, 각계 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민·관·학이 결합된 형태의 한국형 지역상권 활성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오는 5월 30일에는 상권활성화 원년 선포식을 겸한 '재단법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식'이 열린다.

지역경제과 유통팀 031-729-2594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75억1,600만원 지원

53개 아파트단지 내 도로·하수도·놀이터 보수 등

성남시는 올해 관내 53개 아파트단지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75억1,6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등 53개 단지 공동주택은 이달부터 각 단지별 공사 진행 절차에 따라 ▲ 단지 내 도로의 유지보수 ▲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 어린이 놀이터, 공동 화장실 보수 ▲ 비영리목적의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공부방 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 ▲ 지상주차장 유지보수 ▲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 등을 진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85개 아파트 단지에 69억7,600만원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보조금을 지원했다.

주택과 주택시설팀 031-729-3402

성남시내 하수 악취 없어진다

공기공급장치 악취저감 효과 탁월... 설치 확대

성남시는 지역 내 3곳 주택에 시범 설치 운영한 '공기 공급 장치'가 하수 악취저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공기공급장치는 정화조 오수가 모이는 방류수조에 공기를 주입, 공기 내 산소가 악취발생물질을 산화시켜 냄새를 없앤다. 정화조 시설 규모에 따라 150만~300만원 비용의 공기공급장치를 대형건물 정화조에 설치하면 기존 수천만 원대의 오수처리시설과 같은 악취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기공급장치를 5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에 설치 권고하기로 하고, 설치·운영에 대

한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수정·중원 일부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형건물 53곳에 대한 하수악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번 공기공급장치를 시범 설치 운영하게 됐다.

환경부는 성남시의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높게 평가해 모란역 일대를 하수도 악취개선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1억원을 들여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수질복원과 오수관리팀 031-729-4222

포토 뉴스

전통시장 경쟁력 높이자 '상인대학' 운영

성남시는 시장 상인들의 의식 혁신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5월 7일~7월 18일 3개월 과정의 상인대학을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모란민속시장과 단대마트시장 상인 226명이며, 전문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이 맡아 상인 의식 변화와 마케팅, 시장 및 점포 경영 활성화 방안,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교육한다.

시는 올해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이번 상반기 상인대학에 이어 9~11월에는 은행시장, 성호시장 등 3개 전통시장 상인 200명 대상 하반기 상인대학을 운영한다.

지역경제과 유통팀 031-729-2592



시민감동 친절 서비스 '무한질주'

성남시는 시민감동을 위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2,500명 전 공무원 대상 교육에 이어 4월 30일~5월 4일 시·구·동 민원담당 공무원 273명을 대상으로 친절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등 일선 민원현장의 친절상태를 점검, 친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1



운중천에 토종 민물고기 방류

성남시는 건강한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수중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4월 20일 분당구 운중동 운중천에 토종 민물고기 1만 마리를 방류했다.



판교택지개발 공사과 정과 도심화에 따라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을 얻어 방류한 민물고기는 피라미, 미꾸리 등 4개 어종이다.

환경정책과 환경보호팀 031-729-3153

성남여성문화회관 수료생 세계대회 은상

성남여성문화회관 22기 '떡·페백·이바지반' 수료생 3명이 '2012 대전 세계조리사대회' 전통 떡·한과 부문 단체전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신경미(51), 김세라(40), 신동희(36) 씨는 인삼 케이크, 약식, 삼색 인절미 등 5개 전통떡으로 만든 '어버이 건강식'을 제출해 '품위있는 전통의 맛과 멋'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031-729-4601

● 성남시-성남산업진흥재단 공동기획
기업탐방 | 24시간 불합한 판교테크노밸리(6)



국내 유일의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 제공

지난 1995년 설립을 시작으로 1996년 최초로 서울시 버스 안내 시스템(BIS)을 도입한 인포뱅크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통보 서비스를 비롯해, 나는 가수다, 위대한 탄생, 1억 퀴즈쇼 등 지상파의 문자 투표 서비스인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원천기술 특허를 획득, 국내 유일의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40여 명의 직원이 있고 이 중 R&D 인력이 80%를 차지한다.



공동대표 박태형, 장준호 이사

· 인포뱅크(주)는 국내 최초, 최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인포뱅크의 큰 축을 이루는 두 가지 사업 분야는 메시징 서비스,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모바일 부가서비스 등의 이동통신 데이터 부가서비스사업과 단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의 이동통신 단말사업이다. 서울 역삼동과 구로동에 나눠져 있던 회사를 통합해 올해 4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했다.

‘최초’를 탄생시키는 기업 infobank

인포뱅크

공동대표인 박태형(55) 이사와 장준호(55) 이사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거쳐 각각 와튼스쿨 MBA 경영학 석사와 스탠포드대학교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글로벌 인재다.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발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는 회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박 대표와, “3년 내 기업가치 1조의 기업이 되고 싶다. 사회에서 건강한 역할과 건전한 발전을 이루며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장 대표는 고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참된 벗이요, 사업상의 견고한 파트너다.

특허 경영... 특허만 51개

인포뱅크는 현재까지 등록된 특허만 51개가 있고 출원준비 중인 것도 있다. 이러한 특허제조로 명성을 떨친

배경에는 1인 1특허 갖기 운동으로 직원이 특허를 내면 직무발명보상금을 수여하고 동회도 적극 지원하는 회사의 제도가 있다.

직원채용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하며, 직원복지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야탑동에 기숙사를 운영해 지원자는 누구든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약

현재 인포뱅크는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인터넷을 검색하고, 영화·게임·TV·SNS 등과 내비게이션 모바일 기기와 연동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스마트카 전문기업으로 변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성기(34) 팀장은 “입주 후 근무 환경이 좋아진 만큼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대표이사과 직원들 간에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고 곳곳에 위치한 회의장이 말해주듯 자유로움과 유연함이 묻어나는 회사.

12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처럼 인포뱅크의 앞날도 시원하게 세계로 향할 것을 기대한다.

인포뱅크(주) 031-628-1500 www.infobank.net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세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수기 고지서 작성해 신고납부하거나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구청 세무과 | 수정구 031-729-5151
중원구 031-729-6151
분당구 031-729-7154

가족·여성 관련 DB 구축 위한 시민 의견 받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2개월간 일, 정책(복지·교육·법률세무·건축·환경·교육 등), 기관·단체, 예산 등의 사회 전반 자료나 의견을 받는다.

전화(031-729-2911~4), 이메일(lhs0809@korea.kr), 방문(시청서관 6층) 접수한다.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1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스쿠

터 등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돼 신규 이륜자동차는 올해 1월 1일부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1월 1일~6월 30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자동차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등록사업소 1577-3100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그룹 모집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총20개 품목에 대한 제품체험과 홍보활동에 참여할 관내 시민과 대학생을 모집한다.

제품 체험과 홍보 미션 수행, 제품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 제공, 체험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한다. 개인이나 단체로 참가할 수 있으며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 사업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6월 중 이메일(seotaegeun@snip.or.kr), 팩스(031-782-3030)로 신청할 수 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52

중소 콘텐츠 기업에 '무료 법률상담'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관내 게임·방송·애니메이션 등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불공정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월 1일~11월 30일 콘텐츠 계약서와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

리, 분쟁대응방안 등의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홈페이지(www.snventure.net)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63

성남시여성복지회관 수강생 모집

만18세 이상 주민등록지가 성남시로 등재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식조리기능사과 등 24개 전문기술·사회문화 교육과정을 오는 7월 10일~12월 14일 5개월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수강료 면제 대상자 우선 모집은 6월 11~12일 선착순 방문 접수하며, 일반모집은 6월 13일~7월 6일 선착순 인터넷(http://snfamily.or.kr) 접수한다.

수강료는 5만원,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성남시여성복지회관 031-729-2951~5

취·창업 릴레이교육 특강

시민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전략 마케팅' 강좌가 5월 31일(목) 오전 10~12시 여성복지회관 2층 강당(수정구 산성대로 475번길 7)에서 열린다. 정지훈(CCP&P 대표) 강사가 소셜미디어 소개, 활용방법, SNS 활용 마케팅 성공사례 등을 다룬다. 전화나 방문 접수한다.

오는 6월 28일에는 '취·창업 성공사례', 7월 26일에는 '특! 특! 튀는 취업공략하기' 특강이 이어진다.

성남시여성복지회관 031-729-2958



위기가정, 어디에 지원 요청하나요?

성남시 무한돌봄센터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저소득 가정이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고용 등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연계해 위기가구 지원, 통합사례관리, 복지상담 등 폭넓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친척, 가족, 이웃주민 등이 동 주민센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에 연락하면 됩니다.

복지상담 안내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031-729-2491~8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나눔팀

수정구 031-729-5941~7

중원구 031-729-6361~6

분당구 031-729-7245~6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정구 태평2동복지회관 031-722-2029

산성동복지회관 031-626-5488

중원구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070-8275-3907

상대원1동복지회관 070-4335-1686

은행1동복지회관 031-736-4178

중동제2복지회관 031-746-9544

분당구 한솔종합사회복지관 031-8022-1125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상담아카데미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 힘겨운 시기가 청소년기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됩니다. 이 어려움을 돕고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올해는 상담아카데미의 내용으로 청소년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과 부모 자신의 청소년상담 관련 자질향상을 위해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강을 수료하신 분은 이후 집단상담과 심화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교육강사 등 청소년상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정 : 6월 13일(수) ~ 7월 26일(목) 09:30~12:30 총8회
- 장 소 : 아름방송 3층 스튜디오(정자동 소재)
- 대 상 : 학부모 60여 명(참가비 무료)
- 주 관 :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 접수방법 : 5월 21일(월) ~ 6월 5일(화) 선착순 전화접수
- 문 의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상담지원팀(031-756-1388, 031-750-4692~3)

일시	내용	강사
6월 13일(수)	쉽게 이해하는 상담이론	구봉용 원장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6월 20일(수)	상담의 새로운 관점	김병석 교수 (단국대학교 상담심리)
6월 27일(수)	학교폭력·성폭력 상담	육기환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정신과)
7월 4일(수)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상담	이은경 교수 (명지대학교 심리학)
7월 11일(수)	청소년과 통하는 대화	박성수 총장 (웅문대학원대학교 총장)
7월 18일(수)	꿈을 찾는 진로상담	김봉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상담)
7월 25일(수)	청소년기 심리장애와 치료	유성진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심리학)
7월 26일(목)	학습력 향상을 위한 학업상담	김동일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심리)

* 주제 및 강사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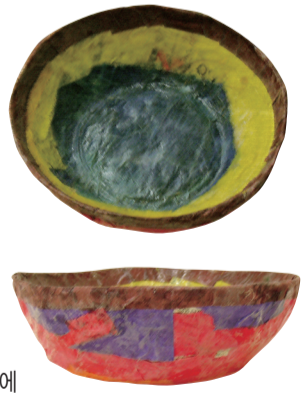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 - 한지그릇 -

요즘 트렌드는 재활용이다. 우리는 재활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부분 분리수거를 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쓰레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지, 쓰레기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을 핑계로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을 생각 없이 쓰진 않는지?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한지그릇을 만들어서 진정한 재활용을 느껴보자.

- 준비물 : 신문지 2~3장, 손잡이 없는 플라스틱그릇, 물풀, 색 한지, 공예용 수용성 니스
- 만드는 순서 : 1. 신문지를 가로 2cm, 세로 4cm 크기로 찢어 놓는다.
2. 플라스틱그릇 겉면에 신문지를 물에 적셔 빈틈없이 겹쳐 붙인다.
3. 1cm 정도의 두께로 균일하게 붙인 다음 햇볕 아래에서 1~2일쯤 말린다.
4. 잘 마른 신문지 그릇을 플라스틱그릇에서 떼어 낸다.
5. 떼어낸 그릇에 색 한지를 찢어 물풀을 이용해 그릇의 안쪽 면에 먼저 붙인다.
6. 뒤집어서 바깥 면에도 색 한지를 붙인다.
7. 잘 마른 그릇에 니스를 발라 방수, 광택을 주어 완성한다.

지금 아이들과 만든 한지그릇을 액세서리 그릇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자원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고 버려지는 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유년시절의 가치관은 인생을 결정한다.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자신이 쓸 그릇을 자신이 만들어 쓰면서, 자원의 소중함을 얻을 수 있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효정 기자 kottami@naver.com
특기적성 미술교사





저자 정희일의 '마음에 불을...' (5) 봐 가며 노 젓기

얼마 전 알던 학원장님을 만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너무 바빠요. 주말에도 일해요”라고 답하는데,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 1년 전과 비슷한 얘기였다. 같은 재정상황, 같은 직원문제 등...

“정 원장님도 바쁘시죠?”라고 해서 “아뇨, 전 별로... 맛집도 자주 가고 틈틈이 책 쓰고 이번에 확장하고 그래요” 답하고 나니 순간 ‘저 원장님은 뭐하느라 바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만에 만난 그 원장님은 같은 문제들에, 성장은 없고 그런데 더 바빠 보이고, 나는 똑같이 1년 지났는데 그간 정말 많이 놀고 산도 자주 가고 영화도 자주 보고 책도 출간하고 학원도 확장하고...

차이가 뭘까 잠시 생각해보니 이런 비유가 생각났다. 앞도 안 보고 죽어라 노를 젓고 있는 사람 VS 열심히 젓다가 잠시 쉬면서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 피로도 회복하고 다시 노를 젓는 사람.

책을 보면 ‘늦어서 지도 보고 달릴 시간 없어요!!’, ‘바빠서 도끼 날 갈 시간이 없어요!!’ 등의 비유가 이미 있긴 하지만, 노 젓는 사람의 비유도 참 적절한 것 같다.

노 젓는 노력이야 당연히 해야 한다. 정말 열심히 저어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지도 않고, 무작정 고개를 박고선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와 방향을 정하지 않고 노만 젓는 건 단순한 노동일 뿐이다. 바쁘려고, 고생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은가?

바쁘다고 말할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저자 소개: 7년 투병기간 동안 2천권 독서. 독학한 영어로 현재 강남서 영리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저개발 국가에 우물파기 등 기부사업 중. <http://cafe.daum.net/realstarteng> ('영리한' 검색) '회일샘' 게시판에 저자의 더 많은 글이 있습니다.



H
·
e
·
a
·
l
·
t
·
h

건강
100세



유희정
성남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장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가정의 달’에 대한 생각



올해 5학년이 된 지훈이는 부모님의 갑작스런 이혼 후 아빠와 단둘이 지냈다. 그런데 2년 전 지훈이에게 새엄마가 생겼다. 친엄마와의 이별, 새엄마와의 만남 모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터라 지훈이는 모든 상황이 낯설고 불안하기만 했다. 지훈이는 조금씩 새엄마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누가 진짜 자신의 가족인지 혼란스럽다.

로 심리전문가에게 아동을 의뢰해 정서를 살펴주도록 하는 제도도 꼭 필요하다.

재혼·조손 등 다양한 가족 형태 받아들여야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아 평생 키우는 것이 소위 전형적인 가족의 틀이지만, 이혼 가정, 재혼을 통해 재구성된 가정, 조부모와 아이만 함께 사는 조손 가정 등의 비전형적인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사회가 더 진보할수록, 가족 형태의 다양성은 더 확장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정자를 공여받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경우도 많고, 동성애자의 가족이 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정의 달을 맞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행사, 미디어에서 그리는 가족의 이미지들은 아직 그런 현실적 변화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부모’가 있어야 가족인 것처럼 그려지는 축제의 장에서, 자칫 편부모, 이혼가정 아동들이 더 상처받거나 상실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된다. 어떤 모양의 가족을 가졌든지,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이었으면 좋겠다.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031-751-2445~6

작년 한 해 1천 명 당 9.4명 이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매년 11만 명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하며, 작년 한 해 동안 배우자가 있는 인구 1천 명 당 9.4명이 이혼을 했다고 한다. 일 년간 적어도 1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편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에서 살게 되고, 재혼가정의 아이가 될 가능성을 갖게 됐다는 뜻이다. 부모 중 한 명이 가출하거나 사별한 경우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가족 구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가 이혼 또는 재혼을 했는가의 여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깊

고 오래된 갈등을 안고 늘 극한 전쟁을 치르며 사는 부부의 아이들보다는 이혼 후 편부모에게 양육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통계도 있다. 사려 깊은 계부모는 오히려 문제가 많은 친부모보다 더 질 좋은 양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 과정이나 재혼 과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 아이들은 병이 든다. 이혼을 계획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며,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특히, 이혼 전후에 양쪽 원가족들이 아이와 상대 편 부모를 이간질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앞으로 이혼 전 숙려 기간 동안 의무적으

소비자 Q&A

자동차운전학원 중도 해지 할 때

Q 8개월 전 자동차운전학원에 총 5시간 기능을 수강하기로 하고 4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3시간 수강 후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생겨서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학원 등록 당시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는 했으나 다른 학원의 경우 1년인 경우도 있어서 나머지 학원비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자동차운전학원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서 교육받은 수강료를 뺀 나머지 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원의 잘못으로 중도 해지 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수강료의 2배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또한 다른 학원 기준과 상관없이 수강신청 당시 3개월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렸기 때문에 학원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나머지 학원비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강자가 교육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역시 소비자는 미 수강한 학원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 경 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

모기·위생해충은 가라

성남시 보건소가 지구온난화로 이른 더위가 다가옴에 따라 하절기 방역에 나섰다. 수정구보건소는 5월 10일 희망대공원과 별터산공원에 17대의 모기 살충기를 설치하는 한편 주택가 밀집지역 방역소독, 감염병 환자발생 모니터링, 집단급식소 세균검사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5~10월 신홍동, 태평동 등 수정구지역 8곳을 지정, 모기유인 채집기를 이용한 모기발생 동태 감시와 모기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모기 신고센터와 방역소독 요청은 홈페이지(www.subo.or.kr)로 하면 된다.

감염병관리팀 031-729-3862

중원구보건소는 위생해충 흡혈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쯤쯤가무시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진드기를 쫓는 기피제 보관함을 금광1동 황송공원 내에 시범설치하고 4~10월 운영한다. 보관함에 비치한 약제를 꺼내 잘 흔들어 옷, 신발 등에 골고루 살포한 후 약제는 보관함에 넣어주면 된다.

감염병관리팀 031-729-3923



건강교실

중원구보건소, 식중독 예방 나서

중원구보건소는 4~9월 식중독과 수인성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5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종사자 보건검사와 조리기구 세균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의 항목을 검사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이들 시설에 손소독제, 살균제 등을 지원하며, 조리종사자에게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식중독과 수인성감염병 예방요령을 현장 교육한다.

감염병관리팀 031-729-3926

성남시약사회, 구충제 5천 정 후원

성남시약사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일환으로 5월 9일 구충제 5천 정(5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일년에 1~2번 정기적으로 먹어야하는 구충제 ‘알비정’은 방문 보건센터에 등록된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장애인에게 우선 1정씩 지급한다. 시는 센터 등록 주민 등 나머지 1만1,705명분 구충제는 자체

예산으로 구입, 5~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중원구보건소 방문보건팀 031-729-3694

저소득층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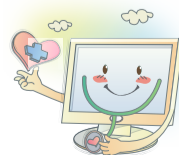
성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CT·MRI·PET 등 고가 특수장비 촬영비를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729-2896

정신건강세미나 ‘양파,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

- 일시 : 6월 14일(목) 14:00~17:00(접수 13:30)
- 장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하1층 대강당(선착순 200명)
- 대상 :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성남시민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031-751-2445





아름다운 나의 서재

봄날 같은 사람, 모란동물병원 김상현 원장

버려진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슬프고 두려운 일이다. 그 상실과 상처로 마음을 닫고 제 안으로 숨거나 독하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모란동물병원' 김상현(51·중원구 성남동·사진) 원장은 봄날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다.

1988년 7월 동물병원 개원 당시, 소동물 병원과 모란시장의 동물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주저 없이 모란시장 맞은편에 개원했다.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과거보다 사람들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는 그는 ‘MBC 와우 동물천하, 아주 특별한 아침(동물병원 24시)’, ‘SBS 세상에 이런 일이, TV 동물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만큼 동물에 대한 사랑이 깊다.

생명체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그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취했다, 필요에 의해 다시 버려지는, 유기동물에 대한 마음이 애뜻하다.

“반려동물 분양 시, 즉흥적이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주거환경 조건과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성장 후 크기도 고려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해 결국 유기 발생 원인이 된다”며 “분양받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김 원장은 감성이 따뜻하고 성품이 온화한, 존경하는 아버지를 닮았다. 그는 아버지가 번역해 준 의학서적을 읽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고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을 좋아한다.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해 성남시가 지정한 ‘부상 조수 치료기관’이며 ‘천연기

념물 동물치료소’를 운영하는 김 원장은 겨울철, 동물 먹이주기 운동을 한다.

“자연적 생태계가 사람들에 의해 변화돼서 야생동물이 반애원동물화 됐다”는 그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분야와 관련해 사회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무척 좋은 일”이라며 웃는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한 달 평균 백여 건 이상 유기동물 보호소에 접수되는 유기동물, “유기동물 사업은 주인의식으로 시민이 주인이 돼 투명하게 관리하고 무료분양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김 원장에게 동물은 가장 가까이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평생 친구다. 어디 김 원장뿐일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함께 생활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꼭 목에 줄을 매거나 운반용 장을 사용하고 대소변 또한 깨끗하게 처리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동물 사랑이라는 김 원장.

계절상 늦봄인데도 대기의 온도는 한여름이다. 꽃감의 뽕맛을 억지로 우려낸 것처럼 봄을 여름으로 우려낸 것 같다. 그러나 분명 김 원장을 닮은 부드럽고 은은한 봄이다. 이 봄, 길거리에 버려져 방치돼 쓰레기통을 뒤지고 전염병을 유발하고 공격적으로 달려들어 사람들을 위협하는 유기동물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동물사랑의 방법이 아닐까.

조민자 기자 dudldk@hanmail.net



문화칼럼

국경은 지리가 아니라 문화

보이차 산지에서 본 우리 문화 독자적 문화 일군 선조들이 사무치게 그리워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은 나라를 들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중국을 꼽습니다. 보이차 산지가 중국 운남인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시장 역시 광동성 광주 방촌시장임을 감안하면 의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사실이 그런데요. 어느 나라를 가나 아무것이나 잘 먹는 제가 중국만 가면 영 먹지를 못합니다. 북경이나 상해, 광주, 곤명



이무정산 의방 차마고도 길에서 필자. 말들이 슬하게 지나다녀서 큰 돌들이 반들반들하다.

은 각각 거리만도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에도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도시에서도 음식을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운남 소수민족들이 사는 보이차 산지를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광주에서 운남 성도인 곤명까지 비행기로만 3시간 넘게 걸립니다. 하룻밤 묵고 새벽에 시흥반나 지역으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탑니다. 50분가량 지난 뒤 도착해서 렌트카로 최대 산지 중 하나인 이무정산으로 올라갑니다. 고지대인 이무까지 가는 데 무려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소수민족이 사는 경유지 촌락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흔히 먹게 되는 음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무나, 철수동, 마후채, 의방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수민족만의 토산음식이 있긴 하지만 일상에서는 중국화한 음식이 대세입니다.

표 나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향신료가 듬뿍 들어있는 음식! 시골에서 자라서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지만 이런 음식만은 속이 뒤집혀서 먹지를 못합니다. 콩나물이나 배추 데쳐 만든 반찬에도 어김없이 들어가는 돼지고기를 보기만 해도 김치생각이 절로 납니다.

혹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밥알에다가 가져간 고추장을 비벼서 먹습니다. 자꾸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규정하는 말들만 떠오릅니다. 개운하고, 칼칼하고, 담백하고, 시원하고….

급기야는 음식 맛을 잘 비벼 넣어서 시를 더욱 감칠맛 나게 하는 백석의 시가 떠오릅니다.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마지막 집에서 /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을 꿰어놓고 저녁을 먹는다” (〈흰 바람벽이 있어〉 부분)

백석의 이 시 후반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시구처럼 “외롭고 높고 쓸쓸

해집니다. 그러나 곧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그 널따란 중국 변방이면서도 오랫동안 대륙과는 전혀 다른 음식문화를 가꾸어왔다는 구체적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의 음식문화가 그르다, 그르지 않다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만의 환경에서 자신에 맞는 독특한 음식문화를 창조해낸 것에 대한 찬탄인 것입니다.

보이차 때문에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문화가 위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중국의 음식문화와는 전혀 다른 음식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크게 느껴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국경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행 / 보이차 전문점 ‘티마켓’(서현동) 대표. 한양대 국문과를 나와 일간지와 시사주간지 등에서 미술·사건·증권기자로 일했다. 저서로는 임권택 감독의 〈창〉의 원작이 된 장편소설 〈세상 끝에 선 여자〉가 있다.

story 1

이 미 경
수정구 삼성동

멋진 택시기사님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매주 한차례씩 모 유치원의 장애아들이 모여 공도 차고 야외 활동을 하며 노는 게 보였다. 혹시나 싶어 아이 둘을 키워본 엄마라며 용기를 내어 자원봉사 도우미를 자청했더니 즉석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

아이들과 공원으로 산책을 가던 날, 언어 장애로 말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녀석들의 고집은 무척 셧다. 공원을 벗어난 도로까지 달려갈 양이면 위험하다며 얼른 쫓아가서 말리는데, 아이는 바닥에 드러눕고 고집을 피운다.

그래도 안 된다고 타이르면 ‘아줌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래요?’ 하는 표정으로 끝까지 버틴다. 맘속으로 ‘그래, 윤석아! 성질 급한 나에게 내가 인내심을 길러주는 구나!’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림을 배우게 됐다.

짧은 순간에 머릿속으로 내 아이들을 생각했다. 집에서는 내가 안 된다는 일에 우리 애가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간 벌써 고향을 썩 질렀을 텐데... 앞으로 내 아이들에게도 기다려 줄줄 알고 이해하는 엄마가 돼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아이들 덕분에 나도 중요한 인생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과 헤어진 후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류장 앞에 택시가 한 대 셧다. 택시에서는 한 남자가 내리고 이어서 다른

여자 분이 내리는 게 보였다. 바로 후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운전기사 아저씨가 급하게 나와 뒤쪽으로 뛰어갔다.

승객의 짐을 내려주나 보다 했는데, 이 기사님은 남자 승객과 여자 승객의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팔을 잡아 부축하면서 지하철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두 승객 모두 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요즘 택시들은 장애인을 잘 태우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기사님은 시각장애인인 그분들을 아예 지하철 안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었다.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사진이라도 찍어 인터넷에 올릴까 생각도 했지만 나의 행동이 되레 기사님의 순수한 선행에 누가 될까봐 애써 참았다.

짧은 내 도우미로 나섰던 나와는 다르게, 영업시간을 축내면서까지 장애인 손님을 내려주신 택시기사님. 요즘 영업용 택시들, 손님이 없어 사납금 채우기조차 힘들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아름다운 장면을 눈에 담고 돌아오는 길 내내 달콤한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story 2

김 애 란
중원구 성남동

“너의 이름이 뭐니?”



아침마다 걷는 아파트 돌담길은 행복의 길이다.

처음엔 앞만 보며 빨리 지나가던 그 돌담길이 언제부터인가 나의 놀이 터가 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담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식물들에 관심이 갔다. 그 꽃들의 변화가 새롭고 나를 설레게 한다. 돌담 옆으로 납작 엷드린 민들레, 망초, 원추리, 툴립, 냉이, 꽃다지, 회양목...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연두색 잎으로 나를 반겨주는 식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해진다. 사계절의 변화, 돌담길을 걸을 수 있는 허락된 시간들, 건강에 감사한다. 그냥 지나치며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싶기도 하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담길 식물들의 사진을 찍어 놓는다. 셔터를 누르며 흡족해하는 나 자신을 보며 이런 게 행복이 아닌가 셧다.

사진을 찍다보니 처음 보는 식물이 있어 “너의 이름이 뭐니?” 묻게 된다. 자연스럽게 식물 책도 찾아보고 이름이 ‘꽃마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 달 정도 관찰하니 파랗고 작은 꽃을 여러 개 피운다. 어린잎만 보았을 땐 몹시 궁금했는데, 알고 나니 더 새롭고 신기하다.

여느 때처럼 내일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식물들과 이야기를 하러 돌담길로 향할 것이다. 잠시 하늘을 보며 새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고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지.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좋은 에너지를 가정, 사회에 전하게 되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억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생각하게 됐다. 오늘부터 남편과 아이들의 이름을 더욱 많이 불러줘야겠다.

모든 이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며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행복은 그리 크지도 또 멀리 있지도 않은 것 같다.

이달의 포토



분당 중앙공원은 휴일에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평일에도 텐트까지 가져와 싱그러운 녹음을 즐기는 시민들이 있다. 가까운 시일 내 직접 한 번 해보고 셧다.

정재두 | 중원구 상대원동



어디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오손도손 벤치 위 주인공이 돼 보시지 않으실래요? 그래도 찾지 못하시겠다면 울동공원에 한번 둘러 보세요.

최선일 | 공보관실

독자마당 안내

독자 수필(원고지 5매 내외)과 사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 20만 화소 이상), 독자사랑방 원고(칭찬, 제언, 편지 등)를 모집합니다. 6월 7일(목)까지 보내주세요(주소·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031-729-2075~6 이메일 sn997@korea.kr

통장님! 비전성남 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대상 : 6·25전쟁 중(1950.6.25 ~ 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 신고자격 : 납북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납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무총리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1661-6250

디디돌학교 2012년 신입생 모집

- 2001년 설립된 비인가 대안학교로 학업중 단청소년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 기간 : 6월 15일(화)까지
- 대상 : 만 13~19세 학교밖청소년 (중·고등학교 유예 및 자퇴)
- 교육내용 : 감정교시 학습지도, 공동체 학습, 문화예술교육, 진로탐색
- 입학과정 : 입학상담(전화·방문) → 예비학교(4주) → 입학식

홈페이지 <http://didimdolschool.cyworld.com>
이 메 일 : 0317554080@paran.com
문의전화 : 031-755-4080, 031-755-4280

고리사채 없는 성남시, 우리 함께 만들어요

- 고리대금(연 이자 39% 이상)
- 폭행협박으로 채권추심
- 대출일선 금액요구
- 전화금융사기 및 대출사기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성남중원경찰서 불법사금융 특별수사팀 031-733-0014

성남문협 제39회 성남사랑 학생창작글짓기대회

- 공모기간 : 6월 4~27일
- 주제 : 성남사랑(시·수필)
- 주최 :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 문의 : 031-744-5005 · 010-8528-5090

(사)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031-744-5005

수정구 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자격 : 합창에 재능과 관심 있는 20~55세 이하 시 거주 여성
- 연습 : 화·목요일 10:30~12:30

수정구청 대회의실
· 활동 :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전국대회 등 각종 행사 참가

수정구여성합창단장 010-5393-7461
수정구청 문화체육팀 031-729-5272

여성문화교육 수강생 모집

- 교육 : 6월 18일~9월 21일
- 모집 : 6월 4~12일 홈페이지

(www.snwomen.or.kr) 선착순 수강신청 후 수강료 납부

- 모집강좌 : 생활영어 등 22개 강좌
- 수강료 : 3만원

정보문화센터 여성문화회관 031-729-4602~5

분당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자격 : 합창에 관심 있는 60세 이하 시 거주 여성
- 연습 : 월·수요일 10:30~12:30
- 활동 :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전국대회 등 각종 행사 참가

분당여성합창단
010-7112-4312, 010-9590-9484

성남시노인보건센터 프로그램

- 치매예방 위한 두뇌활동 프로그램 '봉숭아학당' 참여 어르신 모집 : 60세 이상 시 거주 어르신 중 치매 고위험, 초기치매 진단자(031-739-3061)
- 6월 정기 무료 영화상영(031-739-3000)
 - 제28회 자유결혼(1958년작) : 6월 8일(금) 오후 2시
 - 센터 지하1층 대강당
 - 제29회 팔도사나이(1969년작) : 6월 22일(금) 오후 2시

제13회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 대회일시 : 6월 2일(토) 07:30~10:30 (개회식 08:00)
- 집결장소 :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참가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 달리기 구간(왕복 4.5km) :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중원구청 사거리 → 도촌사거리 앞 중앙분리대 →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참가방법 :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간소 복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집결장소로 나오면 됨.
- 주 관 : 중원구단체장연합회

※ 대회 참가시민에게는 기념 T-셔츠를 제공하고 대회 후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중원구청 총무과 031-729-6022



한글과컴퓨터 청년창업지원센터 모집

- 대상 : IT분야 중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위주로 한 초기(3년 이내 운영) 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예정자, SW 관련 분야 우수 창업아이템 보유자로 1인·소호(5인 이하) 창업희망자, SW연계학과 대학 휴학생 및 졸업생, 졸업예정자 등
- 선발규모 : 10~20개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면접, 종합검토
- 지원내용 : 입주지원 기준 1년 지원 (창업공간, 사무환경, 기타공간, 컨설팅, 교육 등)
- 모집기간 : 5월 17일 ~ 6월 21일

한글과컴퓨터 청년창업센터 운영위원회
031-627-7016

직업능력개발센터 제13기 훈련생 모집

- 훈련기간 : 6월 19일 ~ 9월 6일
- 훈련과정 : 보일러, 전기, 도배, 전통문양&타일, 컴퓨터응용기계가공, 협동조합과정
- 신청자격 : 만 25~65세 시 거주자 중 실업자
- 접수기간 : 5월 14일 ~ 6월 5일

성남시직업능력개발센터 031-739-4086~7
성남일자리센터 031-729-4414, 4417

성남시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자격 : 올 하반기 국내대회와 세계대회에 함께 참가할 시 거주 여성 중 음악을 좋아하는 분,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분
- 연습 : 월·수요일 10:30~13:00

성남시여성합창단장 010-6473-0180

6월 문화·스포츠

6.9(토), 6.20(수)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6월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창의력 쑥쑥! 아빠와 미술놀이!'

- 6월 9일(토) 오전 10시 센터 시청각실
- 대상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시 거주 아버지와 자녀 15쌍
- 신청 : 5월 21일(월)부터 선착순 홈페이지 접수

가족사랑의 날 '은 가족 심리이해하기'

- 6월 20일(수) 오후 7시 센터 시청각실
- 내용 : MBTI를 활용한 우리가족 심리이해하기
- 신청 : 6월 4일(월)부터 선착순 홈페이지 접수
- 대상 : 시 거주 초등 3년~청소년기 가족(8~9 가족)

홈페이지 www.family.go.kr(참여마당→프로그램 참여신청)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팀 031-755-9327(내선 3번)

6.1(금), 6.3(일), 6.10(일), 6.17(일)

2012 중원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 제16회 게이트볼대회 : 6월 1일(금) 황송공원 게이트볼장
- 제13회 테니스대회 : 6월 3일(일) 시립테니스장
- 제22회 축구대회 : 6월 3일(일), 6월 10일(일) 보조구장, 탄천, 황송구장
- 제7회 탁구대회 : 6월 17일(일) 중원청소년수련관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1-729-6271

5~12월 둘째·넷째(금)

사랑방 정보 콘서트

- 일정 : 5~12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 장소 : 판교테크노밸리 내 야외무대(삼평동)
- 내용 : 만돌린·클래식 기타·플루트 등 연주 동호회, 라인댄스·민요·판소리 등 사랑방문화클럽 회원, 시립예술단 공연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6.7(목)

제3회 성남시 육아지원 프로그램 생각이 커지는 어린이 공연 '미술관에 간 율리'

- 일시 : 6월 7일(목) 오후 7~8시
- 장소 : 성남시청 1층 운누리실
- 대상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시민 (선착순 200가정)
- 내용 : 부모와 함께하는 공연, 오디 선생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음악 교육극, 음악으로 읽는 그림책
- 접수 : 5월 23~29일 인터넷 접수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 육아지원 프로그램 → 부모교육·행사 → 보육정보센터)
- 참가비 : 무료

성남시보육정보센터 031-721-1640



6.9, 6.23, 6.30(토)

성남일화 축구단 홈경기 일정

- 6월 9일(토) 오후 7시 vs 경남
- 6월 23일(토) 오후 7시 vs 대전
- 6월 30일(토) 오후 7시 vs 강원
- 장소 :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일화 천마축구단 031-709-4133 www.esfc.com



6·7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
수정구청	소셜네트워킹(고급)	성남시민	7.2 ~ 7.20	월~금 10:00~12:00	6.15(금)~마감시까지 인터넷 접수 www.sujeong-gu.or.kr ☎031-729-5073
	엑셀			월~금 13:00~15:00	
	스위시맥스(고급)			월~금 15:30~17:30	
	파워포인트(아간반)			월·화·목·금 18:30~20:30	
중원구청	인터넷 활용	성남시민	7.2 ~ 7.27	월~금 10:00~12:00	6.1(금)~교육시작 전일까지 중원구 홈페이지 (www.jungwon-gu.or.kr) 생활정보→정보화교육 또는 방문접수 ☎031-729-6071
	컴퓨터 기초			월~금 13:00~15:00	
	엑셀			월~금 15:30~17:30	
수정도서관	한글	성인	7.3 ~ 7.26	화~금 10:00~11:30	6.22(금)~6.24(일) 선착순 인터넷 접수 (http://sj.snlib.net) ☎031-743-9600(214)
	엑셀2007 활용			화~금 13:30~15:00	
파워포인트 2007 프리젠테이션 실무	성인(직장인)	7.7 ~ 7.28	토	10:00~12:30	
(사)성남시장에인정보문화협회	PC기초	장애인 및 가족	3개월	(월·수·금) 09:00~11:00	수시 모집 ☎031-732-6884
	인터넷활용			(월·수·금) 11:00~13:00	
	한글			(월·수·금) 09:00~11:00	
	엑셀			(월·수·금) 11:00~13:00	
	자격증심화반			(월·수·금) 14:00~16:00	
	멀티미디어활용			(화·목) 09:00~11:00	
	파워포인트			(화·목) 11:00~13:00	
자격증심화반	(화·목) 14:00~16:00				

※ 교육일정은 성남시 홈페이지 www.cans21.net 시민정보화교육 에서 확인 가능

와우~성남

‘도란도란 포근포근’ 시청사 디버보기



‘시민 사랑방’ 성남시청사가 외국인 관광객학, 호도나들이, 어린이놀이터, 시민 휴식공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돼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시는 민선5기 들어 기존 시장실을 개조한 북카페를 시작으로 아이사랑놀이터,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각종 행사나 공연, 육아, 운동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일 시민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최근 시청사가 보다 친숙한 소통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관광견학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내 어르신, 외국인 유학생까지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가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00여 명이 시 소재 우수 행정기관 관광 견학차 시청을 방문, 종합홍보관과 북카페, U-City 종합상황실을 둘러보며 시의 발전상에 놀라워했다.



이어 5월 10일에는 ‘산성동 어르신 효 나들이’로 어르신 45명이 시청사를 방문해 시장실 등 시청을 편안하게 구경하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신기한 음악분수 광장에서 사진촬영도 했다.

시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과 내외국인이 즐겨 찾도록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남에서 생활하지만 시청사에 이렇게 시민 공간이 많은지 몰랐어요. 앞으로 데이트 할 때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 이곳으로 올 거예요.” 왕중(가천대 관광경영학과)

어린이놀이터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희소식, 6월 초 시청 아이사랑놀이터 2호가 문을 연다. 유아 중심의 자유놀이실과 놀이프로그램, 전문상담사와 함께 육아고민을 풀어가는 방문상담실 등이 제공돼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종합홍보관 견학 외에도 여름을 맞아 활동을 시작한 음악분수광장, 야외분수 등도 인기만점.



“지난 4월 11일 종합홍보관 등 성남시청을 견학했는데 시장님 방도 구경시켜 주셨어요. 시장님을 직접 보고 악수하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성남시 발전을 위해 많이 애쓰고 계시니까 정말 고맙았어요.” 이재근(상원초등학교 3)

시민 휴식공간

하늘북카페는 6월부터 담소방 운영시간이 종료되는 야간시간대(19:00~21:00)를 활용해 주4회 취업 및 자격취득 스터디 소모임에 공간을 제공한다.

지난 5월 5일 성남어린이날 잔치가 열린 시청사에는 많은 가족들로 붐볐다. 주변에 공원이 있어 평일에도 가족끼리 식사 후 산책하기 좋다. 주말이면 돛자리를 깔고 앉아 여유롭게 계절의 흐름도 관찰할 수 있다. 점점 친숙해지는 공간, 시청사. 꼭 한 번 경험해보자. 박경희 기자 pkh2234@hanmail.net

시청사, 시민이 주인입니다

- 공연·행사·결혼식·관광견학
회의실(1~3층), 옥외시설물
행정지원과 총무팀 031-729-2187
※ 회의실 대관신청 : 시 홈페이지 → 주요 관련 사이트 → 청사내 회의실 예약 (<http://seongnam.go.kr/reserve>)
- 종합홍보관(2층)
공보관실 인터넷홍보팀 031-729-2077
- 체력단련실(4층)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 031-729-4967, 2202
- 건강상담(8층)
성남시정신건강센터 031-754-3220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031-751-2445
- 건강상담(9층)
방문보건센터 031-745-6645~6
눈건강센터 070-7730-9930
- 하늘북카페(9층)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팀
031-729-4980
- 육아지원 아이사랑놀이터(9층)
031-756-1640

